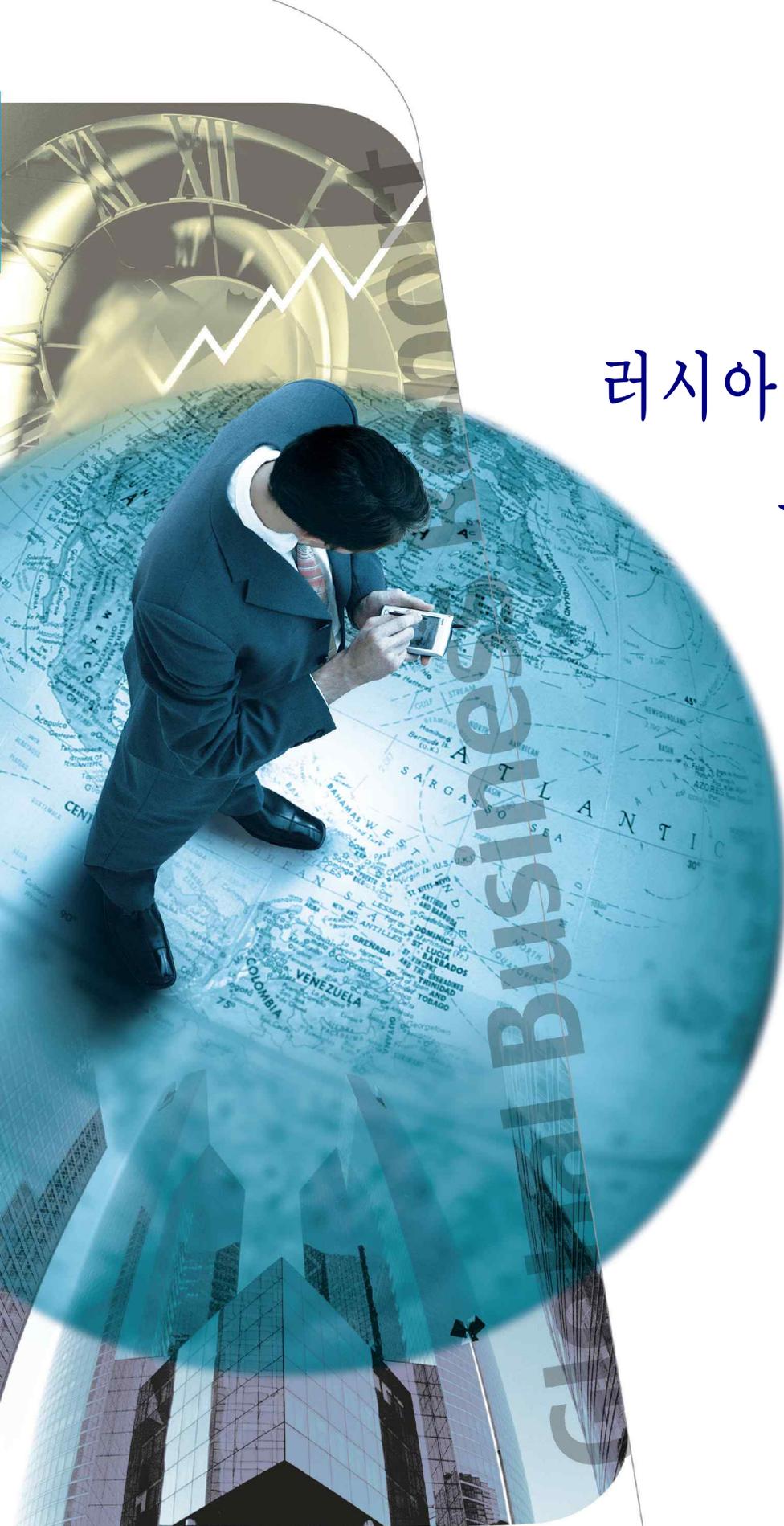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 활용방안



목 차

요약 / 4

1. 러시아의 WTO 가입과 시장변화 / 5

- 가. 러시아의 WTO 가입 /5
- 나. WTO 가입에 따른 시장변화 /6
- 다.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12
- 마. WTO 가입에 따른 산업별 영향 /17

2. 한.러 무역투자에 미치는 영향 / 21

- 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21
- 나. 한국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23
- 다. 주요 품목별 한국상품 수입 바이어 반응 /25
- 라. 한국 수출기업의 시장전망(설문) /32
- 마. 중국의 WTO 가입 사례분석 /34

3. 우리의 활용방안 / 41

- 가. 수출 유망품목 /41
- 나. 진출 유망분야 /42
- 다. 시장진출 확대방안 /44

요 약

□ 러시아의 WTO 가입과 시장변화

- 세계 7위의 경제규모(GDP 2조 \$2,230억)를 갖고 있는 러시아는 G20 국가중 마지막으로 WTO에 가입('11.12.15.)
- 평균 수입관세를 현행 10.0%에서 7.8%로 점진적으로 인하. 농산물은 13.2% → 10.8%, 공산품은 9.5% → 7.3%로 인하
 - 통신, 보험, 은행, 운송, 유통 등 11개 부문 116개 하위부문 개방확대
- 위생검역, 통관, 규격인증, 지적재산권, 투자정책 등이 WTO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선. 투명성이 제고됨.
- 러시아 수입규모는 '10년 \$2,487억→'15년 \$4,340억으로 60% 증가. 매년 GDP 성장을 1% 촉진할 것으로 전망(세계은행)

□ 한·러 무역투자에 미치는 영향

-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로 한국의 수출은 '11년 \$100억에서 '15년에는 \$200억 수준으로 증가. 수출품목의 다변화 예상
 - ※ 한국 수출기업: '12년에는 평균 32.9% 대러 수출 증가 예상('11.12월 설문)
-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425건, \$18억('11.9월 누계)에 달하며, 투자환경개선에는 시간이 소요, 단시일내에 큰 변동은 없을 것
 - ※ 현대차 상트 생산법인: 관세인하로 직수입차의 경쟁력이 나아질 것이지만, 현지 투자기업들의 판매 감소 등과 같은 영향은 거의 없을 것.
 - ※ (사례) 중국의 WTO 가입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02년 \$237억→'05년 \$619억으로 160% 증가, 투자는 '02년 \$10억→'05년 \$28억으로 180% 증가

□ 우리의 활용방안

- 수출 품목의 다변화를 통한 지속 수출성장 기반 확충
 - 유망 수출품목: 의료기기, IT 및 첨단기술제품, 화학제품, 기계류 등
- 시장규모 확대 분야 및 진출장벽 완화 분야에 대한 투자진출
 - 분야: 소비재 생산, 통신, 유통서비스, 금융보험업 등
- SOC 개발 프로젝트 및 정부조달시장 개척, 공동 R&D 및 산업 협력, 수출 시장 및 상품 다변화 추진

1. 러시아의 WTO 가입과 시장변화

가. 러시아의 WTO 가입

- 러시아의 WTO 가입이 '11.12.15~17.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8차 WTO 장관급 각료회의에 상정되어 승인됨.
- 1993년 6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을 신청한 이래 18년간 끌어왔던 WTO 가입이 성사됨.
- 러시아 WTO 실무그룹은 '11.11.10.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공식회의를 갖고 러시아가 WTO 가입을 위해 제시한 개혁과 약속들을 승인.
- 러시아는 WTO 비회원국 중에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진 나라이자 G20 20개국 중 마지막으로 WTO에 가입한 국가로, 경제규모가 2조 2천억 달러로 세계 7위를 차지
- 러시아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거대한 내수(인구 1억 3,873만명, 세계 9위)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에너지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진 러시아는 국내총생산(GDP)의 30%가량은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고 수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기준 67.5%임.
- 러시아는 WTO 각료회의의 신규가입국 승인 후 220일 이내에 러시아 의회의 비준을 받고, 비준 이후 30일이 경과하면 러시아의 WTO 가입이 발효됨.
- 러시아는 내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2012년 상반기에 WTO의 완전한 회원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개관 >

- 인구: 1억 3,873만명(세계 9위)/ 수도: 모스크바(1,052만명)
- 면적: 17,098천 km²(세계 1위, 한국의 171배)
- GDP: \$2조2,230억(세계 7위, 한국의 1.5배)
- 1인당 GDP: \$15,900(세계 71위)
- 수출: \$4,001억, 수입: \$2,487억
- 자원매장: 석유 742억배럴(세계매장의 5.6%), 가스 44조m³(23.7%), 석탄 1,570억톤(19%), 니켈 600만톤(35%)

나. WTO 가입에 따른 시장변화

- 러시아가 제출한 WTO 가입 패키지에는 가입 이후 준수해야 할 지적재산권과 식품검역(SPS), 무역관련 투자조치 등 무역·투자 정책, 상품 관세율 및 서비스 시장 개방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상품 양허

- 러시아는 WTO 가입을 위해 수입관세를 현행 평균 10.0%에서 7.8%로 점진적으로 낮춤.
 -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는 13.2%에서 10.8%로, 공산품 관세는 9.5%에서 7.3%로 낮춤
 - 전 품목의 50% 정도는 양허관세율이 현행 수준이며, 30% 정도는 현행보다 5% 이내 수준으로 소폭 인하.
- 관세율 인하 이행기간은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2-3년이 적용되며, 민감한 상품은 5-8년이 적용됨.
- **(자동차)** 자동차의 경우 가입시부터 관세율은 25%로 인하되고, 2005년 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약 2.5% 씩 관세를 인하하여 최종적으로는 15%로 인하.
 - 7년 이상 중고차의 수입관세는 현행 35% 수준을 유지, 7년 미만은 가입시 25%로 인하 5년간 유지, 이후 2년 간 20%까지 낮출 예정.
 - 20톤 이상급 덤프트럭에 대한 관세는 WTO가입 후 즉시 25%에서 10%로 낮아지며, 3년 이후에는 5%까지 인하됨.
 - 3~5년 된 중고 덤프트럭에 대한 관세는 즉시 30%에서 15%로 인하되며, 3년 이후에는 10%까지 인하. 5~7년 된 중고 덤프트럭에 대한 관세는 15%로 인하되며, 3년 후에는 10%로 인하
 - 러시아의 수입자동차 시장가격은 높은 관세로 인해 선진국에서 보다 훨씬 비싼데, 이는 러시아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결과임.

- 하지만 정부는 WTO가입국인 중국이 하는 것과 같이 비관세 장벽을 사용할 것으로 보임.
- WTO 가입 이후 러시아 현지 생산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자동차 기업에 대한 우대관세를 2018.7.1까지 철폐할 예정임.

※ 2010년말 러시아는 외국 자동차 기업의 러시아 현지 조립 생산 조건을 강화. 외국자동차업체들로 하여금 자동차 조립에 들어가는 부품의 현지화를 30%에서 60%로 늘리고,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하는 것을 의무화하면서, 동시에 부품 우대관세를 제공.

- **(IT)** 컴퓨터 수입관세는 현행 5.4%에서 3년내에 0%로 폐지되고, 가전제품 관세율은 현행 15%에서 7-9%로 인하. LCD·플라즈마 TV는 가입시 20%에서 2015년 10%로 인하. 무선전화기는 가입시 5%에서 2013년 0%로 관세 폐지
- **(의약품)** 의약품 관세율은 현행 5-15%에서 5-6.5%로 인하
- **(화학제품)** 화학제품 관세율은 현행 6.5%에서 5.2%로 인하
- **(섬유/신발)** 섬유 관세는 9.5%에서 7.3%로 인하, 신발 관세도 한 켈레 당 1유로에서 0.3유로로 낮춰질 예정임.
- **(곡물/축산물)** 낙농제품 관세는 현 19.8%에서 14.9%로 관세인하. 분유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 예정.
 - 곡물에 대한 관세는 현 15.1%에서 10.0%로 인하. 쌀 수입 관세는 톤 당 120유로에서 톤 당 40유로로 낮출 예정.
 - 유제품(Oilseed, fats,oils) 관세는 현 9.0%에서 7.1%로 인하 예정.
 - 설탕 관세는 현 톤당 \$243에서 톤당 \$223으로 인하 예정.
- **(항공기)** 향후 7년 동안 점진적으로 항공기 수입관세를 인하할 예정. 장거리 항공기 수입관세는 20%에서 7.5%로, 기타 항공기는 12.5%로 인하. 경비행기(2~15톤)는 2018년까지 현재 10%에서 8%로 관세를 인하할 예정임.

※ 항공기 관세 인하는 이미 2006년 초 경제 통상 개발부에서 무관세 수입을 요청하였으나, 재무부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었

음. 또한 교통부에서도 러시아의 항공산업이 낙후되어 항공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을 근거로 관세 철폐를 요청하였으나, 재무부의 주장과 절충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임.

- **(기계류)** 전기 기계류(Electrical machinery) 관세는 현 8.4%에서 6.2%로 인하
- **(임산물)** 목재와 제지(Wood & Paper) 관세는 현 13.4%에서 8.0%로 인하

□ 서비스 양허

- 통신, 보험, 은행, 운송, 유통 등 11개 서비스 부문의 155개 하위 부문 가운데, 116개 하위부문을 양허하기로 합의
- 보험 부문에서 외국인 지분한도가 현행 49%에서 가입시 51%로 인상된 후에 5년내 외국인 지분제한이 폐지, 외국 보험회사의 지점 설치가 9년 후에 가능해지며, 보험부문에서 외국인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 한도도 현행 25%에서 50%로 인상
- 외국은행의 자회사 설립도 허용되며, 개별 금융기관에 있어 외국 자본 한도는 폐지, 은행시스템에 있어서 전제 외국자본 참여 비율은 50%로 제한.
- 통신 분야의 외국인 지분제한(49%)이 4년 후에 폐지되고, 유통 부문에서 도·소매 및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100% 외국인 소유 회사 설립이 허용됨.

□ 보조금

- **(농업)** 수출보조금 점진적 폐지, 무역 왜곡 보조금 상한액 감축 (2012년 90억불 → 2018년 44억불)
- **(제조업)** 수출이나 국산품 사용을 유도하는 보조금 폐지, 러시아가 취한 보조금 관련 조치를 WTO 보조금위원회에 통보할 의무를 갖게 됨.

□ 에너지가격

- 천연가스 생산과 유통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상업적 고려에 따라 운용되도록 함
- 가정이나 비상업적 용도의 에너지가격은 사회정책적 고려에 따라, 책정하는 것을 용인

□ 무역 관련 투자정책(TRIMs)

- WTO 가입 직후 무역 관련 투자정책은 WTO TRIMs 협정에 합치하도록 됨에 따라, 각종 제한 조치 폐지
- 예외적으로 자동차 관련 투자기업에 대한 △특혜관세 △국내산 부품 사용의무(localization) 부과 조치는 2018.7.1까지 존치

□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TRIPs)

- 러시아는 상표 위조 및 저작권 불법복제 방지에 대한 조치를 약속함. 관련 법령이 WTO 규범에 부합되도록 수정되어온 바, 별도의 이행기간 없이 TRIPs 관련 협정 적용
- 미국의 반대가 컸던 부분으로서 영화, 음악, 서적, 게임,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제약분야 등의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이슈가 됨.

※ 미 무역대표부는 러시아를 14년 동안 지적재산권 도용 우선감시대 상국 리스트에 포함하고 있음.

- 러시아는 2006년에 국내법을 국제법의 수준에 맞추고 지적재산권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지적재산권의 도용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미국과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각종 영화, 음악, 서적, 게임,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 복제 해적판들이 곳곳에서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법률의 집행 및 개선이 미미한 상황임

□ 위생 검역 및 투명성

- 러시아는 식품, 동물, 식물 위생 검역시스템 및 기술 규제 시스템을 WTO 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해 신규 법령을 제정하기로 합의
 - 사람과 동물의 건강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국이 시정할 기회 없이 수입을 중단시키는 조치 불가
- 러시아는 외국과의 교역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제를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 발표해야 하며, 발표 이전에 각종 법령 및 규제에 효력 부여 불가
 - 상기 법령 및 규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 기간 보장 등

□ 라이선스

- 주류, 제약에 대한 수입 라이선스가 폐지됨.
- 암호화 데이터 기술 제품, WiFi와 블루투스 등 무선통신장치, 디지털암호기, 스마트카드 등을 포함한 첨단 기술제품에 대한 수입 라이선스가 필요없어짐.

□ 정부 조달

- 정부조달에 대한 WTO의 자발적 협약에 가입할 계획이며, 가입 4년 이내에 협약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 협상을 시작할 전망

□ 항공

- 항공기 임대에 대한 규정은 외국항공기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
- 2013년 이후 현재 외국항공사들로부터 받고 있는 시베리아 영공 통과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세관 수수료

- 현재 100,000 루블(약 3,333 루블)에서 30,000 루블(약 1,000 달러)로 최대 통관 비용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임.

□ 수출 관세

- (고철/구리) 고철 및 스크랩에 대한 수출관세는 향후 5년 이내에 '15% 또는 톤 당 15유로'에서 '5% 또는 톤 당 5유로'로 인하 예정이며, 구리 음극에 관한 수출 관세는 10%에서 4년 이내에 무관세(0%)로 변경 예정임.

- (목재) WTO 가입 후 자작나무와 사시나무 목재에 대한 수출관세가 각각 75%, 소나무 목재는 50% 인하될 예정. 현 목재의 관세는 큐브릭 미터 당 15유로 정도임.

※ 특히 동 사항은 핀란드와의 쟁점이 컸음. 핀란드는 러시아 목재 수출물량의 20%를 수입하며, 목재 가공산업은 핀란드 GDP의 16%를 점유하고 있음.

□ 주요 법률 수정 내역

-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련 법률) 블라지미르 푸틴 총리는 2006년 12월 22일 대통령 재직당시, 수입시 보호조치, 반덤핑 및 상계조치에 관한 법률의 수정안에 서명하였으며, 수정법안은 러시아 법률안을 WTO 기준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반덤핑 및 상계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기준을 마련, 수입 증가에 대한 근거를 전체 생산량에 대한 절대적 혹은 상대적인 지표에 의해서 검증이 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어있음.
- 특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로 수입된 물량의 변화와 수입품의 가격이 러시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여야 한다

는 내용과 개별 기업의 덤핑 판매를 통한 수익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반덤핑관세의 부과 방법, 반덤핑관세 혹은 상계관세
 등 러시아 시장에 대한 보호 조치의 파급 효과에 대한 판단을
 위한 감독 기관의 수행 절차,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대
 한 통보와 이를 결정하는 절차의 완료에 대한 통보에 대한 내용
 을 담고 있음.

-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 러시아 하원은 2007년 1월 12일
 지적 재산권의 위반에 대하여 위반 분야에 상관없이 최대 6년의
 실형(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하였음. 또한 지적 재산
 권 위반 사범은 특사에 따른 감형이 적용되지 않게 됨. 이에 따
 라 CD, 패션 잡화류, 의약품 등 모든 분야에 대하여 저작권 보
 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지적재산권 보호 움직임은 최근 러시아의 영화, 음반 시장의 규
 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과 맞물려서 단속 강화에 활력
 을 얻을 것이라는 낙관론과 불법복제가 지방을 중심으로 소규모
 로 제작되는 경우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론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임.

※ 2006년 게르만 그레프 경제통상개발부 장관은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 산업의 생산비율이 전체 GDP의 70%를 넘는 반면에,
 러시아의 경우 30%에 그치고 있음을 역설하고, 이러한 산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법 복제품 퇴출이 러시아의 자체
 산업 육성에 있어서의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다.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WTO 가입은 해외시장에서의 차별 감소에 따른 수출시장 확대
 와 제도의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경제체질개선 등 긍정적인 영
 향이 있지만, 취약산업의 도산 및 실업률증가와 같은 부정적 영
 향을 가져올 우려도 잔존함.

구 분	긍정적인 영향/부문	부정적인 영향/부문
경제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시장의 외연확대 및 러시아 제품의 반덤핑제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 국제기준에 적합한 러시아 법 및 규정 정비 ▪ 러시아 기업의 기술 현대화 가속 ▪ 경쟁을 통한 시장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 국내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감소
산업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 ▪ 화약-비료 ▪ 목재 ▪ 소매유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 자동차산업 ▪ 식품가공업 ▪ 이동통신업

□ 긍정적인 면

- (세계경제로의 편입) 러시아 경제가 세계경제에 보다 긴밀하게 편입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러시아의 무역 및 투자 관련 국제경제 무대에서의 발언권이 커짐.
- 미-러 FTA 가장 큰 장애물인 잭슨-바닉 수정안도 곧 폐기될 것으로 보임. 미국은 잭슨-바닉 조항을 2012년 말까지 폐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11.11.29. John Beyrle 주미 대사가 밝힘.

[참고] 잭슨-바닉 조항

1974년 미국 종합무역법의 수정조항으로 현재까지 4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 공산권 국가에 대한 무역제한 규정. 1974년 미국의 헨리 잭슨과 찰스 바닉 의원이 발의해 채택되었으며, 자국민에게 이민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국가에 대해 최혜국 대우, 정부신용공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주로 자국 내 유대인들의 이주를 허용하지 않던 소련을 겨냥해 만들어짐.

잭슨-바닉 조항이 폐지되지 않을 경우 러시아가 WTO에 가입해 다른 나라에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미국은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됨.

- **(해외시장 진출촉진)** 러시아는 WTO회원국과의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관계 가운데서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며, 무역마찰 및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WTO 비회원국으로서 받게되는 차별적 대우를 개선할 수 있게 됨.
 - 유럽연합에 대한 철강 수출 증가 전망. 현재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할당하고 있는 할당쿼터제가 WTO 가입으로 인해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임. 하지만 이는 가입 후 3년 뒤에 효력이 발생함.
- **(소비자 혜택)** 무역장벽의 제거로 인하여, 러시아 국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입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외국계 은행 및 보험회사의 진출을 통하여 자국 금융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개선이 이루어져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 **(경제체질 개선)** 러시아 경제가 국제사회에 보다 개방되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러시아 경제 구조 개선 등 상당한 효과가 예상됨.
 - 개방화로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됨.
- **(경제성장 촉진)** 피터슨 연구소에 의하면 WTO가입으로 5년 안에 러시아의 수출이 2배로 상승. 세계은행에 따르면 러시아의 WTO 가입은 향후 5~10년 간 매년 1%의 러시아 GDP성장에 기여할 것.
- **(인플레이 억제)** 관세인하로 인한 국내 경쟁 심화와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조정 정책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을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임.
- **(행정제도 개선)** 러시아 내 세관 통관 제도 등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행정적, 제도적 문제점들이 글로벌 스탠다드화로 개선될 것으로 보임.
 - 통관 절차,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도 국제 표준에 걸맞는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임. 물류제도가 많이 개선되

어 아시아와 유럽간의 상품 운송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외국인 투자 촉진)** 러시아의 무역과 투자 관련 법률 제도를 예측이 가능한 WTO기준으로 맞춰 외국인 투자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WTO가입으로 인해 기술환경이 개선될 것이며 투자자들의 신뢰 증가 및 투자증대로 이어질 전망.
- 외국 및 러시아 제약회사들은 WTO의 가입이 국내시장에서의 신약 판매와 투자 매력도 상승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음. 국내외 제약회사들은 WTO가입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약에 대한 6년의 특허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임.
- 유럽연합도 러시아와 FTA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직접투자가 더 많아질 것을 의미함. 아직 미국과는 FTA협상에 대한 소식이 없지만 미국도 러시아와의 양자 투자 협정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음.

※ 중국이 지난 2002년 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적으로 교역과 대 중국 투자가 증가한 선례가 있음.

- **(CIS 역내통합)** WTO의 중재과정은 FTA 문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러시아는 관세동맹, 유라시아경제동맹 창설 등 역내 통합을 주도. 상사분쟁을 중재할 메카니즘이 생겨 통합을 촉진할 전망

-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게 되면 WTO는 실효성 있는 중재 역할을 제공할 것이고, 필요시 이의 제기 및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짐.

※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그루지야, 아르메니아와 우크라이나 이미 WTO의 회원이며, 카자흐스탄도 가입을 추진중에 있음.

- **(OECD 가입)** 러시아는 WTO가입으로 인해 OECD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음. 러시아의 WTO 가입은 조만간 이루어질 OECD

가입과 함께, 러시아의 규제 완화, 법의 지배(rule of law) 강화, 투명성 제고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

- 1996년부터 러시아는 OECD 가입을 진행해 온 바, 러시아의 WTO 가입 및 OECD 반부패협정(뇌물방지협약) 가입을 전제 조건으로 러시아의 OECD 가입이 가능하게 됨. 러시아는 2011년 5월에 OECD 반부패협정(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하였으며, 2011년 12월에 뇌물방지협약에도 가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부정적인 면

- **(수입증가와 영세 제조업체의 산업기반 붕괴)** 외국산 제품과의 경쟁에 뒤쳐진 자국의 영세 산업의 기반 붕괴 및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 전반적인 소비재의 수입 증가는 국내 산업을 약화시킬 수도 있음. 러시아 생산업체들은 향후 러시아 시장에 진입하는 외국업체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며, 상당수가 도산할 가능성 있음.
- **(수출증대 효과 미미)** 러시아의 경우 전체 수출의 70%는 반덤핑제소 등을 당할 가능성이 없는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 WTO 가입을 통해 대외 수출쪽에서 큰 이익을 볼 것은 없음. 몇몇 전문가들은 러시아 경제가 1차산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 러시아가 WTO에 가입해도 국내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
- **(외국인 투자 위축)** 러시아에 이미 진출해있는 외국투자자들이 WTO의 가입으로 관세가 인하될 경우 러시아보다 임금이 저렴한 제 3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축소 등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 **(자동차 산업 위축)** 러시아 트럭시장은 국내, 국외 제조업체 사이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AUTOSTAT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트럭시장 판매에서 러시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였으며, 2010년 56.7%까지 성장했음.
- KamAZ, GAZ, Ural사는 WTO 가입으로 인한 여파를 걱정하고

있음. 서구 업체의 트럭과 중국의 중고트럭이 시장에 많이 진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 **(농업분야 타격)** 러시아 농산업자들은 WTO가입으로 인해 재정적 위기를 겪지 않아도 될 듯함. WTO 가입조건은 정부가 2012년과 2013년에 농업보조금을 90억 달러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해놓았으나, 이는 2011년 러시아가 농업부문에 지원한 금액의 두 배가 넘는 액수임.
- 양돈, 낙농, 쌀생산 농가의 수익은 반토막 날 것이라고까지 분석. 양돈업에 투자하려고 했던 회사들도 이를 재검토하고 있음.
- **(항공산업 프로젝트 장애)** WTO 가입은 러시아의 대규모 항공산업 프로젝트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 지금까지 보호관세를 통해서 러시아의 여객기 사업 Sukhoi SuperJet 100과 MS-21은 순항하고 있었으나, 향후 수입 기종에 대한 수입관세가 인하될 예정에 있어 두 프로젝트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라. WTO 가입에 따른 산업별 영향

- **(철강 산업)** WTO 가입 이후, EU 지역이 러시아 철강재(강판)에 대한 쿼터(330만톤, 2011년 기준)가 실질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EU로의 수출 확대가 예상됨
- 단, WTO 가입즉시 쿼터 철폐가 되지는 않으므로, 수출증대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주요업체]
 - Novolipetsk Steel(NLMK)
 - Mechel(MTLR)
 - Sevevrstal, Evraz(SVST)
 - Magnitogorsk & Steel works(MMK)
- **(화학산업)** 화학산업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강세를 보이는 산업으로, 가입이후 외국기업과의 M & A를 통한 수출증대가 예상됨.
- 장기적으로는 러시아 국내석유가스가격이 국제가격수준에 맞춰진다면, 원가상승 →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주요업체]

- Phosargo(PHOR)
 - Urakali(URKA)
 - Acron(AKRN)
- (소매유통업) M & A등을 통한 글로벌 유통체인들의 러시아 시장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되며, 30-40%에 달하는 러시아 수입식품에 대한 관세 철폐로 소비자 잉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 (농수산업) 정부의 농업산업 보조금 축소협약에 따라, 2012년 미화 90억달러의 보조금을 2017년까지 미화 44억달러로 축소시킬 예정임. 이에 따라, 대외경쟁력 열위에 있는 농수산업 부문의 타격이 전망됨

[인터뷰] «러시아 곡물연합» 대표 Mr. Arkady Zlochevsky
(<http://grun.ru>)

쌀 생산업자들은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 쌀 산업에 대한 보호 관세는 톤 당 120 유로에서 거의 3배 줄어들은 45 유로로 인하될 것임. 산업보호정책 덕분에 올해 쌀 수확량은 30만 톤에서 120만 톤으로 증가했었음. 이는 모든 국내 수요를 충당하고, 수출까지도 할 수 있는 양임. 하지만 WTO 가입으로 인해 쌀 산업은 침체를 겪을 것임.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50만명의 거주자들은 쌀농사 외에는 다른 작물을 경작할 수 없음.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할 것임. WTO는 러시아에게 다른 작물에 대한 세계시장 공급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주지 않았음. 단 하나의 가능성은 흑해 지역의 밀에 대한 유럽의 할당량 폐지 문제와 이미 캐나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 국가 할당량 쿼터의 도입이나, EU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

[인터뷰] «러시아 육류연합» 대표 Mr. Sergei Yushin
(<http://www.natmeat.ru>)

돼지고기 수입 쿼터협정에서 할당관세는 7만 톤(43만 톤까지)으로 약간 감소했음. 하지만 내부할당관세는 15%에서 0%로 변경되었음. 할당 규모에 대한 토론에 참여한 시장 대표들은 절충안에(돼지고기 수입쿼터 300톤까지 감소)합의했음. 하지만 그들은 WTO 가입과 동시에 생돼지 수입에 대한 관세가 한 번에 8배나(40%에서 5%) 줄어든다는 것은 몰랐음. 이는 도살용 돼지가 즉시 러시아에 수입된다는 것을 뜻하며, 시장참여자들은 백만 두 이상의 돼지가 수입될 것으로 보고 있음. 이외에도 돼지 지방 및 부산물의 수입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될 것임. 돼

지고기 수입쿼터 43만 톤과 함께, 돼지고기 부산물 등을 다 포함한 전체 돼지고기의 수입은 연간 100만 톤 수준을 유지할 것임. 여기에 가금류와 쇠고기를 추가하면 2010년 육류 수입량 200만 톤을 초과하게 될 것임. 2019년까지는 전체 육류 제품 수입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이후에는 모든 쿼터가 폐지됨) 합의됨.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양돈업체는 위기에 직면할 것임. 양돈업체에 있어서 러시아의 WTO 가입은 수익을 2배 이상(kg 당 30루블에서 15루블로) 감소시키고, 따라서 양돈공장에 대한 투자회수 기간은 8년이 넘으며, 10년이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음. 이에 양돈사업계획은 달라진 사업환경에 따라 재고되어야 할 것임.

- **(의료)**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 의약품 등록절차 등이 국제표준을 따르게 됨에 따라, 수출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접근도가 개선될 전망
 - X-RAY, 치과용 의료기기 등 의료기기의 관세율은 현재 15-5% → 2-3%까지 낮아질 예정이며, 정부의 보건현대화 정책과 연계한 투자프로그램 활성화로 외국인 투자진출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산업)** WTO 가입 이후, 30%수준(신차 기준)인 현 관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2017년경 15%에 이를 전망
 -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과 해외 자동차 기업의 2017년 이전 러시아 시장 선점 욕구가 맞물려,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러시아 투자진출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
 - 이에 따라, 러시아 내 자동차 연관 산업이 활성화 될 전망
- **(섬유 산업)** 섬유 제품에 대한 관세는 9.5%에서 7.3% 가량 인하될 전망. 업계 관계자들은 WTO 가입이 섬유산업의 현대화와 러시아 내 유통비용의 하락으로 인한 채산성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

[인터뷰] Nordtex, Gloria-jeans, Mega»사 대표
 세계시장으로의 개방은 총 생산량의 절반 이하를 차지하는 수출 산업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러시아 의류사업의 발전에 대한 주요 장애물은 위조제품 시장임. WTO 가입으로 인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낮아질수록 위조제품에 대한 수익성도 낮아질 것이므로 위조제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인터뷰] «러시아 가죽및신발연합» 대표 Mr. Alexander Andrunakievich (<http://www.souzkogevnikov.ru/>)
 러시아 생산기업들에게는 가죽원료 수출관세인하, 신발수입 관세인하, 수출보조금 폐지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가죽 완제품의 30%가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보조금 지원 중단은 기업경제에 있어 좋지 않은 효과를 미치게 될 것임. 가죽 산업의 수익성은 수출보조금 없이 평균 1% 정도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움. 만약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원재료 수출 관세가 인하된다면(5년 간 톤 당 500유로에서 200유로로 2.5배 인하), 1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가죽원료만 수출될 것임.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석유, 가스) 정부재정수입의 40%에 달하는 석유, 가스산업은 러정부의 자율성 확대에 다소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EU로부터의 가격하락 압박이라는 부정적인 요인과 석유, 가스산업과 연관된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잔존함 .
- (건축자재) 러시아 건설자재 산업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인터뷰] «Building Information»사 대표 Mr. Evgeni Botka (www.bestresearch.ru)
 러시아의 WTO 가입은 건설자재 부문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음. 러시아 업체들은 외국업체들의 압박이나 사업환경의 커다란 변화를 예상하고 있지는 않음. 이는 대부분의 건설자재에 관한 기존 관세가 5%가 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 .

«Technonikol»사 대표 Mr. Sergei Kolesnikov (<http://www.tn.ru>)
 높은 수입비중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는 영향이 있음. 예를 들어 지붕 자재중에서 타일을 들 수 있음. 이제 러시아 타일 제조업체들은 유럽공급자들의 가격에 맞추어 가격을 조정해야만 함. 관세의 인하나 폐지는 동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수입업자에게 더 유연한 가격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고급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2. 한·러 무역투자에 미치는 영향

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수출전망

- 러시아는 한국의 11번째 수출대상국이며, 러시아의 WTO가입은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됨. 한국의 수출은 '11년 \$100억에서 '15년에는 \$200억 수준으로 증가 전망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추이 및 전망]

(단위:\$억, %)

연 도	2008	2009	2010	2011(예측)	2015(전망)
금 액	97	42	77	100	200
증가율	20.5	-57.0	85.0	29.8	100.0

자료: 관세청, '15년 전망은 KOTRA

- 러시아의 WTO가입은 많은 품목의 관세율의 인하 등 많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감소가 기대되어 한국 기업의 대러 수출 증가와 러시아시장 접근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관세인하 작업은 WTO 가입이후 1년에서 7년 가량을 거쳐서 실시되기 때문에 시장변화는 점진적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임.

□ 러시아 수입시장 성장 전망

- 러시아의 수입시장이 2009년의 세계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매년 30%대의 성장을 지속. WTO가입후에는 수입시장이 더욱 성장하여 '10년 \$2,487억에서 '15년에는 \$4,340억으로 성장 전망

[러시아의 수입시장 성장 전망]

(단위:\$억)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금 액	2,487	3,093	3,235	3,519	3,827	4,340

자료: EIU

□ 수출품목 구조변화

- 한국의 대러 수출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 선박 등에 집중되어 있는데, 현재 180개 품목(MTI 3단위 기준)의 대러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수출품목의 다변화가 예상됨.

[한국의 대러시아 10대 수출품목]

(단위:\$백만, %)

순위	품목명	2010		2011.1-10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자동차	2,083	144.5	2,615	61.2
2	자동차부품	764	135.9	1,111	96.2
3	선박해양구조물	609	111.5	609	23배
4	합성수지	448	53.4	525	39.0
5	건설광산기계	194	330.5	430	175.6
6	영상기기	324	50.4	225	-17.6
7	무선통신기기	375	2.9	191	-35.6
8	철강관	118	121.0	188	95.9
9	가정용회전기기	180	94.7	152	5.6
10	플라스틱제품	139	42.0	145	24.5

자료원: 관세청, MTI 3단위 기준

□ 유의할 점

- 러시아의 WTO 가입이 전적으로 우리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님.
- 관세율 인하효과는 시장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인근 EU 국가 등 다른 WTO 회원국 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는 결과를 가져옴. 시장경쟁이 높아지고 신규 진입 기업에 의해 시장이 잠식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상존함. 또한 러시아가 WTO 가입 후 EU와 FTA를 체결할 경우, EU와의 교역이 더욱 증가하면서 우리로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 기존 진출 한국기업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격경쟁력 제고, 마케팅 활동 강화 등 경쟁심화에 대비한 활동으로 비용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

- 수출관세의 인하는 지역별 수입구조를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의 비중은 조금 성장할 것이며, 현재 사실상 관세장벽이 없는 CIS로부터의 상품수입 비중은 조금 내려갈 것이며, 기타 지역의 비중은 미미하게 다소 증가할 것이라고 함.

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對러 투자('11.10월 누계)는 18억불, 러시아의 對한 투자('10년말 누계)는 4천5백만불로 투자협력은 양국의 경제규모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
- 한국의 對러 투자는 대기업의 제조업분야 투자가 주종을 이룸.
 - 현대차(\$6억5천만), LG전자(\$1억5천만), KT&G(\$1억6천만), 삼성전자(\$1억), 야쿠르트(\$7천만), 롯데제과(\$4천만), 오리온(\$1억) 등

【 한국-러시아 투자 추이 】

(단위:\$백만)

	2008	2009	2010	누계
對러 투자	359 (62건)	427 (32건)	332 (22건)	1,848 (427건)
對한 투자	8.5	1.2	4.3	45.3

자료: 수출입은행, (K, 주) 對러 투자 누계는 '11.9월 기준

- WTO 가입으로 러시아 경제 전반이 투명해지고 예측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기업의 투자와 비즈니스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내 행정적, 법률적, 제도적 투자환경의 개선은 대러 투자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특히 자동차, IT 전자, 철강, 기계 플랜트산업 및 소비재 등 전반적인 제조업의 대러 시장진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경제의 취약점인 불투명한 세관 및 행정이 개선되고, 투명성(Transparency),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 및 일관성(consistency)이 제고되어 전반적인 투자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대 러시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9
금액	5,700	8,200	11,180	14,290	27,797	27,027	15,906	13,810	11,736
성장률	20.5	32.0	43.8	27.8	94.5	-2.8	-41.1	-13.2	43.2

자료원 : 러시아연방 통계청

- 글로벌 해외기업의 투자진출로 경쟁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과도기 과정을 거쳐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환경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임.
- 러시아의 고질적인 경제 문제 중의 하나로 전문가들이 꼽은 낮은 노동 생산성은 해외 투자와 외국의 현대적 기술 도입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른 바 “전략적 산업군”으로의 외국자본투자를 규제하던 러시아연방의 법안개선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러시아는 서비스 산업 및 금융관련 산업이 취약한데 동 분야에 효율성과 경험을 겸비한 서비스산업 및 은행, 보험 업계, 엔지니어링 기술 기업들이 진출할 경우 상당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유의할 점

-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는 EU 등 외국 기업 진출 증가로 국내 중소기업 시장 진출기회 축소를 들 수 있음.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기업과 미국기업의 투자 증가가 예상돼 상대적으로 투자진출이 쉽지 않은 국내 중소기업으로는 시장선점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경우도 다른 해외 투자기업들과의 경쟁심화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입을 수도 있음.

[인터뷰] 현대자동차 러시아 생산 법인 (2011.12.8, 정재찬과장)

러시아의 자동차 관세 세부내용은 경제개발부 및 산업통산부의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여 약간의 혼선이 있다고 함.

수입관세가 인하되면 현재보다는 직수입차의 경쟁력이 나아질 것이나 관세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현지생산 외국인 기업들도 그동안 충분한 대비를 할 것임.

현지 진출한 외국인 자동차생산기업의 전반적인 의견은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인한 현지진출기업의 판매하락 등과 같은 타격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현대는 상트 공장 생산능력을 연간 20만대로 증설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조만간 쉐보레를 제치고 1위를 탈환할 것으로 전망됨.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 생산법인 전경>



다. 주요품목별 한국상품 수입 바이어 반응

- 상당수 러시아 바이어의 경우 WTO 가입 후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일정기간 관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

- 관세인하, 러시아 자체인증 대신 국제규격 적용범위 확대 등에 기대를 하고 있으나, 실물 경제에서 어떠한 상황으로 현실화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반응
- * 구소련 붕괴 후 각종 경제관련 정책이 발표되고, 일부 국가와는 관세동맹도 체결되었으나, 현지 경제인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았던 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러시아 제조업이 취약한 부분의 수입 증가를 예상하나, 수입품간 시장경쟁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이미 상당수의 글로벌 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해 있고, 국가간 FTA와는 달리 관세인하 등의 효과가 WTO 회원국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제품 시장의 확대 가능성은 높으나, 특정국가 제품만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

자동차

- 7년에 걸쳐 관세인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입 물량 확대 등의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갑작스런 수입량 증가등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움 (Sollers)

유통업/무역업

- WTO 가입 이전에 비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유통기업의 경쟁으로 유통업 전반의 성장을 가져올 것임. (Stimul)
- WTO 가입으로 인한 러시아 경제의 변화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사안임.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경제의 국제표준 도입으로 사업 여건이 우호적으로 변할 것을 기대함. (Pacific Korean Group)
- 시장 개방은 가격경쟁력을 가진 중국제품보다 품질 경쟁력을 가진 한국산 제품의 시장 접근도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므로, 한국산 제품의 구매를 늘릴 것임

건설중장비

- 러시아의 WTO 가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수출입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음. 물론 일부 관세인하 품목이 있겠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경쟁대상국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선을 변경하는 등의 큰 변화는 없을 것임. 단, 수입산의 가격인하로 인해 러시아 제조업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AST)

□ 주류 및 음료

- 현재 주류 및 음료에 적용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각종 허가사항이 WTO 가입 시 국제기준을 인정하는 등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식음료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진출이 예상된다.
- 이에 따라 러시아의 중소규모 수입업체 및 제조업체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중소규모 수입업체는 글로벌업체의 지역별 디스트리뷰터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으며,
 - 제조업체는 생존을 위해 M&A 등을 통한 기업규모 확대를 추진할 것임. (Trapeza)

□ 통신기기

- 통신기기의 경우 수입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장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재 통신기기 수입 시 필요한 각종 허가서류 및 라이선스 등이 실제로 어떻게 변경될 지 알 수 없어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WTO에 가입한다고 해서 현 규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음.
- WTO 가입 시 걸음마 단계인 러시아 제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며, 천연자원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Umix telecom)

□ 화장품

- WTO 가입에 따라 관세가 인하되고, 강제적인 러시아 인증취득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 화장품의 경우 각 종류별로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러시아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타 품목군 대비 복잡한 인증문제로 인해 신제품 수입에 많은 시간이 걸렸으나, WTO 가입 후에는 국제규격 보유시 동 문제 해결 전망 (Legendy utrennei svezhesti)

□ 보일러

- 관세율 및 인증제도 변화에 기대를 하고 있음. 특히 인증제도의 경우 동사가 수입을 희망하는 품목 대부분이 국제규격은 보유하고 있으나, 러시아 인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인증획득에 많은 시간 및 자금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일부 제품은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아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WTO 가입 이후 외국 경쟁업체의 직접진출과 관련해서는 보일러 등 유지·보수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단기간내 시장장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동사의 경우 단순히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 설치, A/S 등을 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기존 고객의 이탈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Borey)

□ 디젤발전기

- 디젤발전기의 경우 현재도 무관세 품목이기 때문에 WTO 가입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 경제 전반으로는 중소기업 사업자 및 제조업체의 경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Zaeltsovskaya company)

□ 인테리어 제품

- 주로 수입품을 취급하는 회사들은 WTO 가입이 긍정적인 요소

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대부분의 러시아 제조업체들은 외국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러 정부차원에서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점진적인 개방을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함. (Region Oboi)
- WTO 가입이 궁극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임. 물론 초기에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러시아 기업들은 외국업체와의 경쟁을 위해 비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생존한 기업들은 향후 러시아의 대표기업으로 러시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임.
- 또한, 소비자들은 현재보다 높은 서비스, 품질, 가격 인하의 혜택을 보게 될 것임. (SanTechMaster)

□ 레저용품

- 각종 보트 및 부품을 수입품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WTO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음.
- 또한, 초기에는 러시아 제조업이 타격을 받겠지만, 기본적인 체질개선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Sprut-Mercury)
- 러시아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나, 러시아의 WTO 가입은 필요하다고 생각됨. 공정한 경쟁을 통해 러시아 기업들은 문제점을 파악하게 될 것이고,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Akva Sport)

□ 중고자동차

- WTO 가입이 러시아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정확한 긍정 및 부정적인 요소는 알지 못함. 러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WTO 가입이 러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임.

- 자동차 수입과 관련해서는 관세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즉시 인하가 아닌 7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St-Motors)

- 러시아의 천연자원 수출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쟁력이 약한 일반 제조업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 경제시스템 하에서는 개방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적절한 개방속도 조절이 이루어진다면 러시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함. (Nsk-Motors)

□ 폴리에스터 파이버

- 폴리에스터 파이버 판매 및 침구류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WTO 가입에 따른 해외 소싱 창구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일부 관세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현 물류시스템 하에서는 관세 이외에 과도한 물류비용 등 부대비용이 많아 소비자 가격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Siberian Fiber)

□ 농산물

- WTO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적인 위치로 인해 큰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통상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우랄산맥 서쪽 지역은 유럽산 수입품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으나, 시베리아 지역은 물류비용 등으로 인해 영향이 크지 않은 상황임. 일례로 카자흐스탄과의 관세동맹 이후 일부 카자흐스탄 업체가 진출하였으나, 관세 이외에도 각종 부대비용이 커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SAHO)

- 수입산에 비해, 대외 경쟁력열위의 상태에 있는 상황임. 정부지원정책에 따라 향후 산업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함. (Mikhailovsky Broiler)

□ 치과의료기기

- 구체적인 수치로 영향을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관세인하 조치로 인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외국업체와의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Denta Style)

□ 신발류

- 신발류의 경우 2006년 이후 국제수준으로 점진적인 관세인하 조치를 해왔기 때문에 WTO에 가입한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함.
- 그동안 관세인하로 인해 정상적인 통관이 많아진 점을 감안할 때, WTO 가입이 전반적인 러시아 경제 시스템 개선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함.
- 외국 경쟁업체의 러시아 진출 가속화 전망과 관련해서는 WTO 가입이 러시아의 모든 시스템의 정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격한 시장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음. (Obuv Rossii)

□ 제분·제빵류

- 노보시비르스크를 포함한 인근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진출을 크게 염려하고 있지 않음.
- 기존에 선점하고 있는 원료소싱 및 판매처 발굴은 물론 까다로운 조건의 군 납품 등을 단기간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음.
- 또한, 최근 수년간 러시아 각 지역의 곡물생산량이 증가하여 오히려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 생산을 통한 경쟁은 가능하나, 단순한 수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일례로 닭고기 등 축산물의 경우도 구소련 붕괴 이후 한동안 미국 및 중남미산이 시장을 잠식했으나, 러시아 축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현재는 미미한 점유율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제품과는 상황이 틀리다고 판단됨. (Bread producers union “Voskh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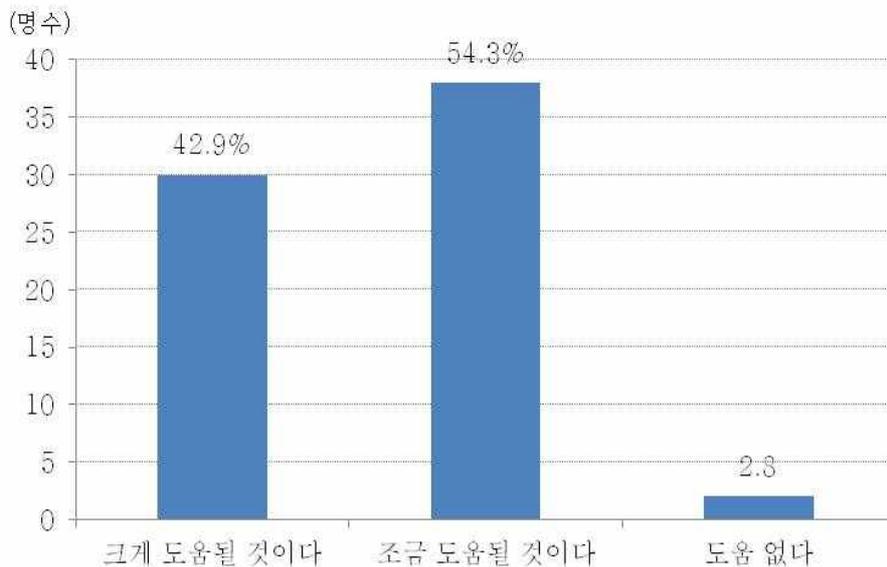
라. 한국 수출기업의 시장전망(설문조사)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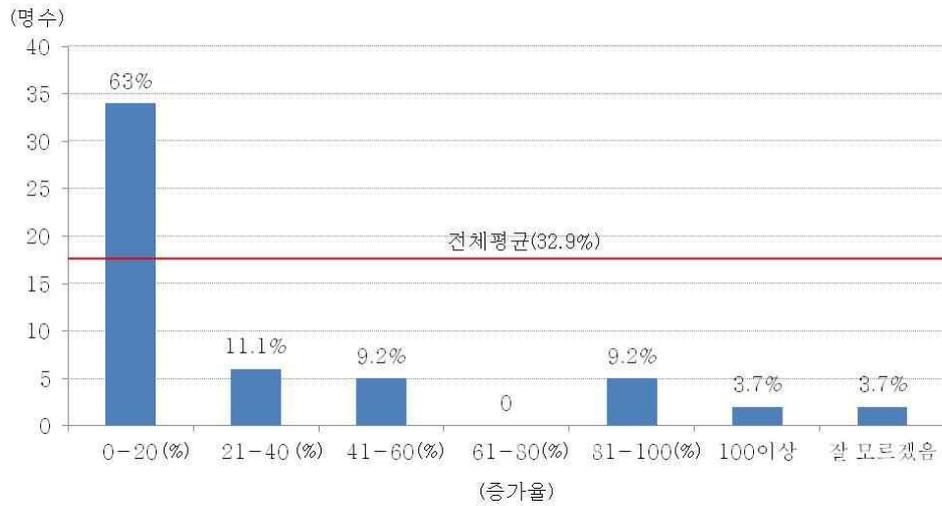
- 조사대상: 러시아 수출 및 관심 기업 70개사
- 조사기간: 2011.12.9.-11. (2일간)
- 조사내용: 러시아의 WTO 가입관련 설문조사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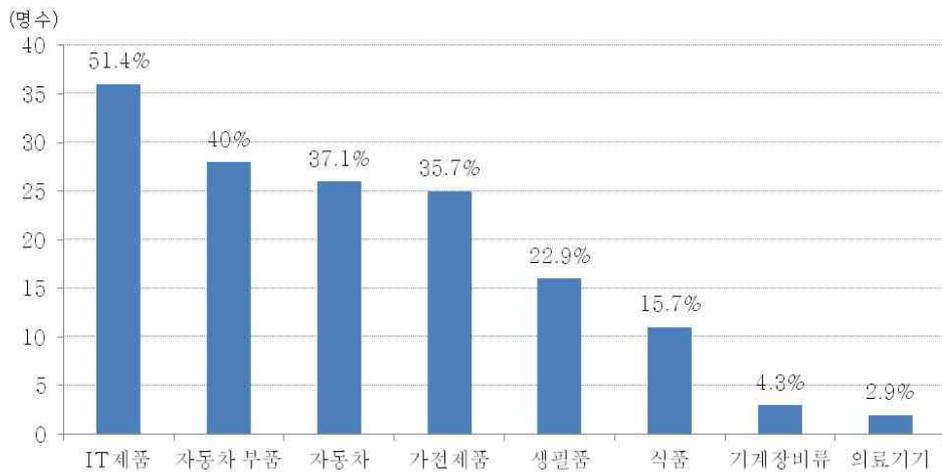
- **(인식정도)** 러시아의 WTO 가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45.7%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음.
- **(관심도)** 러시아 시장에 대해 신규로 진출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은 81.4%로 시장개척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영향분석)** 러시아의 WTO 가입이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97.7%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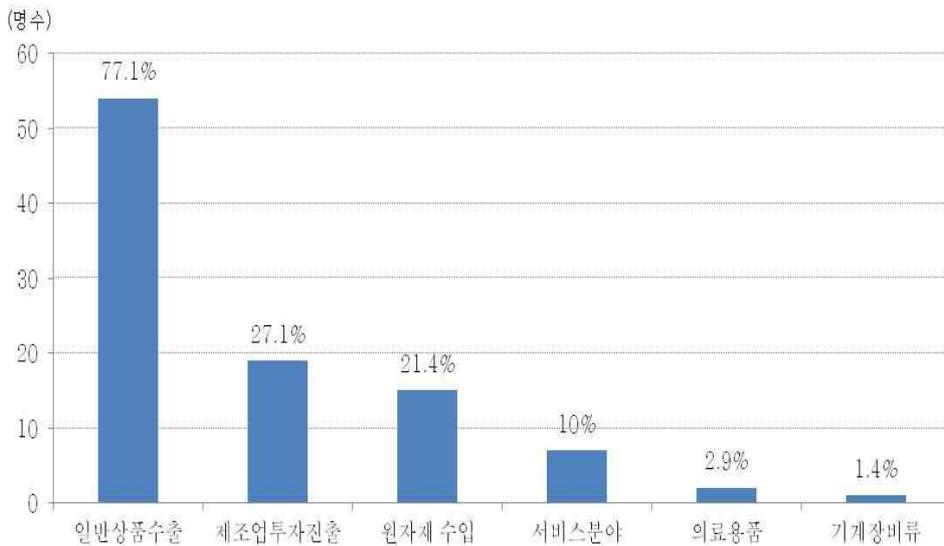
- **(수출전망)** 2012년도 러시아 수출은 평균 32.9% 성장할 것으로 전망.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도 3.7%에 달함.



- **(유망 수출품목)** 기업들은 IT제품, 자동차부품, 자동차, 가전제품, 생필품의 수출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



- **(진출확대 유망분야)** 일반 상품수출이 가장 유망(77.1% 전망)하며, 제조업 투자진출(27.1%), 원자재 수입(21.4%)도 유망한 것으로 분석



마. 중국의 WTO 가입 사례 분석

- 중국의 WTO 가입(2002년) 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02년 \$237억에서 '05년에는 \$619억으로 160% 증가. 한국의 투자는 '02년 \$10억에서 '05년에는 28억으로 180% 증가함.

1) 중국의 WTO 가입이후 비관세장벽 개선 현황

-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WTO 가입당시 15.3%에서 가입 10년째인 올해 기준 9.8%로 하락
 - 가입이후 중국은 100여개 서비스 무역 분야를 개방했으며 이와 관련 사상 최대 규모의 법규 손질을 단행함
 - WTO 가입관련 손질된 법규가 3천개에 이름
- 지난 10년간 중국은 비관세장벽을 지속적으로 인하, HS Code 8단위 기준 총 424개 제품의 수입쿼터, 수입허가증, 특정입찰을 취소함
 - 여러 차례에 걸쳐 800여개 제품에 대한 자동수입허가 관리제도를 취소함
 - 이외에도 여러 업종에 대한 외국자본의 경영권 획득을 허가함

□ 대대적인 법규 손질

- WTO 가입이후 2~3년간 중앙정부가 약 2천여건의 법규를 정리

하고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법규 500여건을 폐지함

- 지방정부가 정리한 문건까지 합하면 WTO 가입이후 2~3년간 총 9만 여건의 법규가 정리됨
- WTO 가입이후 현재까지 중국 중앙정부가 약 3000건의 법률, 법규를 정리하고 지방정부가 약 19만건의 법률, 법규를 정리함
- 무역, 외환, 해관, 공상 등 무역과 관련이 있거나 영향이 있는 법률, 법규와 기타 정책, 성급 정부가 문서형식으로 발표한 규정, 방법, 실시세칙, 월권적인 법규 등이 정리대상 법규에 포함됨

□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을 통한 수출통제

- WTO 가입초기 중국은 199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수출증치세(부가세) 환급정책을 실시함
- 이후 2004년 1월 1일부로 수출증치세 환급정책을 새롭게 실시해 세금환급시스템을 개혁함
 - 고에너지, 고자원, 고오염 제품수출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함
 - 억제대상 제품에 대해 중국은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통제함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중국은 7차례 연속 방직품, 의류, 기계전기제품, 철강재, 화공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함
 - 이를 통해 수출침체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등 경제침체를 막기 위해 노력함
 - 2010년 7월 15일 중국은 일부 철강재, 유색금속가공재료, 의약, 농약, 화공제품,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제품, 유리와 제품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을 취소함
 - 당시 수출증치세 조정대상 품목으로 약 406개 품목이 선정됨

□ 지식재산권 보호

- WTO 가입이후 중국은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을 손질함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지식재산해관보호조례를 새롭게 발

표함

- 집적회로 배치 디자인 보호조례, 정보망 전파권 보호조례를 제정함
- TRIPS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규정, 행정법규, 규범성 문건을 정리함
- 중국은 현재까지 총 20개 지식재산권 국제조약에 가입함

○ 2008년 6월 15일 중국 국무원이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강요'를 발표함

-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WTO 가입이후 중국의 특허, 상표신청건수와 판권등록이 크게 증가함
- 특허신청건수는 2001년 20만 3573건에서 2010년에는 122만 2286건으로 다섯배가 증가함
- 특허권은 2001년 11만 4251건에서 2010년 81만 4825건으로 6배가 늘어남

○ 전반적으로 중국기업의 특허건수 증가속도가 외자기업에 비해 높으나 하이테크 기술분야 등 일부에서는 외자기업 특허가 중국 내자기업보다 높음

- 예를 들어 자동차를 대상으로 할 경우 내자기업의 특허건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나 신에너지자동차 분야에서는 내자기업의 핵심기술 특허신청이 적음
- 혼합 동력 자동차분야에서는 외자기업 특허가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일본, 미국, 독일계 기업의 특허건수가 각각 1~3위를 차지함
- 기술제어분야에서는 외자기업 특허가 전체의 80%를 초과함
- 연료전지자동차 분야에서는 외자기업의 특허가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일본, 미국, 한국계기업의 특허건수가 각각 1~3위를 차지함

□ 무역경영권 개방

○ 중국은 WTO 가입 3년 후부터 중국기업, 외국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중국 경내에서 화물수출입 무역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크게 확대함

- WTO가입 5년간의 과도기간중 중국은 양허안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HS Code 8단위 기준 총 424개 제품에 대한 허가증, 쿼

터, 외환관리, 기술검사기준 등 비관세장벽을 철폐함

- 2009년까지 민영기업의 수출입무역규모가 5100억 위안으로 전체 수출입 교역액의 23.1%를 차지함
 - 외자기업의 수출입규모는 1.2조 위안으로 전체 교역액의 55.2%를 차지함
- 2005년 1월 1일 중국은 자동차수입쿼터 허가제를 폐지하고 자동차에 대해 자동수입허가관리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자동차 수입 관세율을 30%로 낮춤
 - 2006년 7월 이후 자동차 수입관세를 25%로 재차 인하함

□ 외국자본의 서비스시장 진입장벽 완화

- 2005년이후 서비스업종 개방속도를 가속화함
 - 2010년까지 WTO가 분류하는 160여개 서비스무역부문중 중국은 100여개를 대외개방함
 - 앞으로 은행, 보험, 전신, 회계, 교육 등 11개 분야의 개방도를 한층 확대할 예정임
- 2003년 중국은 외국계 택배기업의 중국내 합자기업 설립 최대지분율을 75%로 올림
 - 2010년 FedEx, UPS, DHL, TNT의 중국 택배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함
- 중국내 독자여행사 설립이 허용되는 등 여행업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짐
 - 일부 외자합자여행사의 중국내 해외관광업무수행이 가능해짐
 - WTO가입 이후 중국내 설립된 외자여행사가 총 65개사에 달함
 - 2005년 중국 국가여유국과 상무부는 '외자 다수 지분, 독자여행사 설립 잠정 규정'을 수정해 등록자본금 기준을 낮추고 외자 다수지분 및 독자여행사 설립 관련 지역제한을 철폐함
- 중국은 외자기업에 대해 통신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함
 - 앞으로 부가가치전신서비스, 기초전신호출업 등에 대해 외국자본이 51%까지 지분투자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임
 - 현재 외국자본의 중국내 전신분야 최대 지분율은 49%임

- 2006년 중국은 ‘은행관리조례’를 수정 발표해 같은 해 12월 11일부로 시행함
 - 이 규정을 통해 외자은행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실시함
 - 이후 외자은행수가 뚜렷이 증가하고 업무범위가 꾸준히 확대됨
 - 2007년 4월 외자은행의 위안화 업무와 외자은행의 동일 지역내 지점설립을 허용함
 - 이를 위한 심사허가조건을 중국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함
 - 2010년 말 외국자본이 중국내 설립한 독자 또는 합자은행 본행, 분행 등은 총 360개임

2) 한국의 대중국 수출 급증품목 및 요인 분석

□ IT 제품 수출 급증

- WTO 가입 후 전세계 생산라인의 중국이전이 빠르게 증가함
 - IT 생산라인이 대거 이전하면서 중국내 관련 원부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함
 - 이 때문에 한국의 컴퓨터부품, 무선통신기기 부품, 모니터, 집적회로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나 최근에는 중국산 역수입제품이 증가, 시장내 경쟁격화 등으로 일본, 대만, 한국산 등 수입제품 점유율 다소 하락함
- 광학기기부품, 축전지, 승용차, 자동차부품의 중국수입관세율이 낮아지면서 해당 제품의 대중 수출이 2002년 이후 크게 증가함
 - 2003년 자동차부품, 광학기기부품의 대중 수출증가율은 각각 459.5%, 596.9% 폭발적으로 증가함
 - 스캐너, 팩스기, 디지털카메라, 멀티미디어폰 발전으로 광학기기 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함
 - 2009년 중국이 자동차 하향, 자동차 구매세 우대정책 등 자동차 경기부양정책을 취하면서 차량 및 차량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우리의 대중국 자동차, 부품 수출이 크게 확대됨

중국 WTO 가입 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급증 품목

(단위 : \$백만, %)

품목	2002년	2003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1.1~10
평판디스플레이	43 (229.9)	152 (249.8)	392 (158.1)	2,745 (258.7)	6,868 (19.1)	16,415 (10.3)
집적회로반도체	619 (129.3)	1,441 (132.8)	2,923 (102.9)	7,509 (12.4)	7,725 (-8.3)	10,583 (-16.3)
무선통신기기부품	852 (208.7)	1,745 (104.9)	2,929 (67.9)	3,932 (14.7)	5,645 (6.7)	3,584 (-2.8)
자동차부품	169 (116.2)	944 (459.5)	1,736 (83.9)	2,665 (-1.0)	1,945 (-15.0)	3,612 (20.4)
제트유 및 등유	198 (-9.9)	160 (-19.4)	697 (336.0)	1,750 (94.8)	3,044 (77.4)	3,366 (123.2)
축전지	46 (755.3)	80 (72.7)	182 (127.6)	584 (57.3)	1,611 (56.9)	2,163 (15.4)
건설중장비	290 (58.7)	584 (101.6)	435 (-25.6)	633 (46.3)	1,055 (24.4)	2,158 (20.7)
광학기기부품	61 (92.4)	425 (596.9)	1,783 (319.8)	2,386 (-37.5)	5,161 (42.7)	1,999 (0.9)
모니터	720 (569.5)	1,344 (86.7)	1,854 (37.9)	2,656 (0.4)	2,264 (-34.2)	747 (-6.9)
컴퓨터부품	948 (81.5)	1,998 (110.9)	3,107 (55.5)	1,653 (-16.4)	1,188 (-27.4)	552 (-10.9)

주 : 괄호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원 : KITA

3) 종합 평가

 수출품목 다변화 필요

- 한국의 대중 수출구조는 소수 품목에 집중돼 중장기적으로 대중 수출확대 제약요인으로 작용
 - 우리의 대중수출 상위 5대 품목(MTI 4단위 기준)의 비중이 35% 선에 달함
 - 특히 우리의 대중수출 품목 중 약 1/3이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합성수지 등 소수 품목에 집중

 중국시장 수출선 다변화 시급

- 우리 제품의 중국내 주요 수요처를 내수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

- 중국 내 우리 투자기업도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부자재 소싱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환하고 있어 수출선 다변화 노력 필요
- 중국정부의 가공무역 규제강화 및 선진국의 수요감소로 향후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내수와 내륙”에 초점을 맞추어 공략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동부 연해 및 1선 도시에서 내륙의 2,3선 도시로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

우리의 대중수출 주요 품목 현황(2009~2011.10월)

(단위: 억 달러)

2009			2010			2011.1~10		
순위	품 목	금액	순위	품 목	금액	순위	품 목	금액
1	평판디스플레이	128.8	1	평판디스플레이	18.0.7	1	평판디스플레이	164.1
2	집적회로반도체	79.7	2	집적회로반도체	147.9	2	집적회로반도체	105.8
3	합성수지	57.0	3	합성수지	69.5	3	합성수지	62.4
4	무선통신기기부품	51.9	4	무선통신기기부품	43.8	4	석유화학합성원료	37.7
5	석유화학합성원료	30.1	5	자동차부품	37.8	5	자동차부품	36.1
6	자동차부품	26.6	6	석유화학합성원료	35.4	6	무선통신기기부품	35.8
7	석유화학중간원료	21.6	7	석유화학중간원료	25.2	7	제트유 및 등유	33.7
8	축전지	18.3	8	광학기기 부품	23.8	8	석유화학중간원료	30.8
9	광학기기부품	17.9	9	건설중장비	22.4	9	기초유분	25.4
10	기초유분	16.9	10	축전지	22.3	10	건설중장비	21.6

주 : MTI 4단위 기준

자료원 : KITA

3. 우리의 활용방안

가. 수출 유망품목

품목	수출전망 및 요인분석
의료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 의약품 등록절차등이 국제표준을 따르게 됨에 따라, 수출기업들의 러시아 시장접근도 개선 ▪ X-ray, 치과용 의료기기 등은 현재 15-5%에서 2-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 또한, 러시아정부의 약 200억달러 규모의 의료현대화 정책으로 의료기기 교체 수요 다대한 점도 수출전망을 밝게하는 요인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차기준 30%인 현 관세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15%로 낮아질 전망. ▪ 20톤 이상급 덤프트럭에 대한 관세는 WTO 가입 후 즉시 25% → 10%로 인하되며, 3년 후에는 5%까지 인하. 3-7년된 중고 덤프트럭의 관세도 3년후에는 10%까지 인하될 전망 ▪ WTO가입 이후 자동차에 대한 관세인하는 러시아 시장에 대한 관세 장벽을 낮춰, 시장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함. ▪ 자동차 수출의 증가 및 시장선점을 위한 글로벌 업계의 러시아 투자 진출은 자동차 부품 등 자동차 연관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첨단 기술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무선통신장치, 스마트 그리드 등 한국이 대외 경쟁력을 가진 첨단 기술제품에 대한 라이선스가 필요 없게 됨으로 인해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IT 및 가전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를 포함한 IT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는 3년내 5.4% → 0%로 폐지 ▪ 가전제품 관세율은 15%→7-9%로 인하, 무선전화기는 2013년까지 관세 폐지 ▪ IT 및 가전제품은 한국이 대외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관세 인하 및 폐지는 시장선점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제공
화학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율은 현행 6.5%→5%로 인하 ▪ 합성수지 등 러시아내 원자재 수요 증가
기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기계류 관세 현행 8.4 6.2%로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투자활성화로 일반 기계류 수요 증가
섬유 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 관세는 9.5%→7.3%로 인하 예정이며, 섬유는 러시아 제품의 경쟁력 이 낮아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분야임 ▪ 신발 수입관세는 1켈레당 1유로 → 0.3유로로 인하, 수입에 의존
농산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관세는 13.2% 10.8%로 인하 ▪ 가공식품류는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 선호도 높음
문화 컨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강화로 시장여건 개선 ▪ 한국 K-pop, 드라마, 게임 등 문화컨텐츠에 대한 인지도 향상

나. 진출 유망분야

□ 시장규모에 확대에 따른 투자진출 활성화 예상

- WTO 가입에 따라 불투명한 세관 및 행정 이 개선되고, 투명성 (Transparency),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및 일관성 (Consistency)이 제고되어 전반적인 투자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러시아 소비시장 규모가 큰 자동차, IT·전자, 기계플랜트, 식음료 및 각종 소비재 등은 투자환경개선 효과가 명확해질 경우 러시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글로벌 기업의 현지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투자진출 러시현상이 벌어질지는 불명확함.
- 중국의 경우 세계의 공장 역할 및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현지 투자진출이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 및 일부 구소련 시장 공략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지 시장규모가 큰 품목군을 중심으로 현지 투자진출 확대를 고려할 것으로 판단됨
- * 일부 전문가는 소비재의 경우 관세인하로 인해 생산단가가 낮은 제 3지역에서 생산하고 러시아로는 수출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

□ 진출장벽 완화에 따른 투자진출 활성화

- 통신시장 등“전략 산업군”으로 외국자본투자를 규제하던 러시아연방의 법안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업과 같이 규제완화와 더불어 현지 산업구조가 취약한 부분의 외국기업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분 야	사 유	WTO 가입이후 달라지는 점
보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건물 증가 등으로 보험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업 자체는 걸음마 단계 ▪ 현재 러시아의 보험업 시장은 각종 규제로 인해 외국계 기업의 진출이 어려웠으나, WTO 가입 이후 진입장벽이 낮아져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지분한도가 현행 49%에서 가입시 51%로 인상된 후에 5년내 외국인 지분제한 폐지 ▪ 외국 보험회사의 지점 설치가 가입 9년 후에 가능해지며, 보험부문 전체에서 외국인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 한도도 현행 25%에서 50%로 인상
통신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외국계 기업 진출 규제로 인해 이동통신은 소위 Big 3 (MTS, Megafone, Beeline), 유선 통신은 Rostelecom이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지분제한 49%가 가입 4년 후 폐지되며, 외국계 기업이 직접 회사를 설립.운영 가능
유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인의 소득증가와 더불어 소비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각 제품군별 중고급 브랜드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가입 이후 외국 자본 100%의 도소매 및 프랜차이즈 운영 가능

다. 시장진출 확대방안

□ SOC 개발 프로젝트 및 정부조달시장 진출

- 러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강력한 원자재산업의 기반과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정보통신(IT)분야, 전기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분야에서 높은 산업생산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건설 토목 등의 서비스분야에서도 상당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음.
- 최근 러시아는 산업경제현대화 추진 및 각종 국제행사 및 스포츠 행사 유치로 여러 개발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우리 정부 및 기업차원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파악하고 참여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함.

□ 제조업 및 유통분야 투자진출 확대

- 러시아는 WTO 미가입 국가 중 최대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내수 시장이 확대되며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있어, 이미 각국간 치열한 경쟁 상황이며 WTO 가입이 현실화 될 경우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사업 환경이 개선되게 되어 투자진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 우리 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언어적인 장벽, 불투명한 사회 시스템, 정보 접근의 제한성, 급속히 높아지는 임금 및 임차료 등으로 인하여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또한 우리 기업에 대한 법률적, 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 법률 사무소, 금융기관, 회계법인 등의 진출이 미약한 지역이므로 정부차원의 투자진출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함.
- 일부 품목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기업숫자가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시장정보부족, 의사소통 장애, 초기 마케팅비용 과다, 거래성사에 장기간 소요 등의 어려움으로 시장개척에 소극적임.
- 최근 급변하고 있는 러시아시장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관심제고

및 인식전환이 요망되며, 적극적인 현지투자 활성화가 요구됨.

□ 수출시장 및 상품 다변화 추진

-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수출 상위 5개 품목(자동차, 자동차 부품, 선박,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가 전체 수출의 55%를 점유하고 있어 경기변동에 따라 등락이 심함.
- 모스크바,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광활한 지방상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척활동이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 필요함.

□ 공동 R&D 및 산업협력 확대

- 러시아는 항공 우주과학, 기계, 신소재, 통신 및 레이저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기초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음. 한국기업이 이와 같은 러시아의 기초기술을 효과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다면 한국의 기업 또는 제품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러시아 시장을 확보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의 우수한 원천기술 및 기초과학기술을 발굴, 관련 기술보유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유망기술의 국내도입과 활용이 필요함. 또한 발굴된 원천기술의 상업화, 기술경쟁력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해외시장 진출기회 확대 필요.

□ 통상 인프라 확충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 우리의 러시아 통상전문가는 경쟁대상국인 EU나 중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실정임. 러시아와의 통상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러시아 전문가를 육성 확충할 필요가 있음. 특히 민간기업이나 학계에서는 물론이고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러시아 경제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은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여타 경쟁국에 앞서서 러시아와의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함.
- 또한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활성화될 기업들의 무역투자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 및 정부 차원의 다양

한 통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 사료됨. 비즈니스에서 인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러시아 시장의 특성상 각종 개별적 인사교류, 경제 협력 단체 조직, 경험관련 연례 정기행사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채널의 통상네트워크 구축은 우리의 러시아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러시아 지역별 진출 전략 수립

- 러시아는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등을 중심으로 한 서부러시아 지역과 노보시비르스크를 중심으로 한 시베리아 지역,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극동 러시아 지역이 서로 다른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 지역 진출시 지역시장 특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함.
 - 지역별·품목별 시장특성에 따른 프리미엄제품 특화, 주요 지방도시 공략, 현지생산체제 구축 및 현지화 등을 이용한 진출전략 수립필요
- 아울러, 최근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를 원하는 지방정부의 투자 제안이 많이 있으나, 낙후 산업에 대한 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 우리 기업 입장에서의 정확한 투자 적정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특별경제구역(SEZ), 스콜코보 혁신도시, 각종 지역개발계획, 프로젝트 등도 적극 활용 가능

[참고] 러시아 특별경제구역(SEZ)

러시아 정부에서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을 중심으로 일부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 산업구조를 다각화시키고, 외국기업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위해 설립한 경제 구역으로서 2005년도에 러시아 주요 지방 도시에 총 6개가 설치되었으며, 점차 그 수를 늘려가 2011년 현재 24개가 운영중에 있음

주요 투자 유치 분야로는 산업/생산분야, 관광/레크리에이션분야, 기술/혁신분야, 항만분야 등이 있음.

최소 투자 금액은 산업/생산분야, 항만분야의 경우 3백만 유로 이상

이며, 관광/레크리에이션분야, 기술/혁신분야는 최소 투자금 규정이 없음.

입주업체는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음.

[참고] 스콜코보 혁신도시

- 과학자 및 입주 기업을 위한 초현대식 테크노파크로 조성
 - 중점 연구 분야는 에너지, IT, 원자료, 의료, 우주 등
 - 정부 예산 지원 규모
 - 2010년 50억 루블(1억 7천만 달러)
 - 2011년 200억-300억 루블(6,9억-10억 달러)
 - 2015년까지 약 35억 달러
 - 연구개발단지 투자 기업에 대해 향후 10년간 부가가치세, 수익세, 재산세, 토지세, 임차료, 법인세 등 감면 및 해외우수인력 취업비자발급 등을 계획
 - 현재 노키아, Cisco, 보잉사, 마이크로소프트, 지멘스, 애플, 차이나모빌, Intel, IBM, MIT, ENEL, HP 등이 입주를 결정함.
 - 위치 : 모스크바 외곽 순환도로(MKAD)로부터 서쪽 외곽으로 2km 지점
 - 건설 : 2010년 설계, 2011년 착공, 종합단지 조성에 3~7년 소요 예상
-
- 최근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원하는 러시아 지방정부의 투자유치제안이 늘고 있는바, 우리 기업 입장의 관심제고가 요망됨.
 - 향후 카자흐스탄 등 WTO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CIS 국가들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확대를 대비한 진출전략 준비도 필요함.
 - 약 3억의 인구를 가진 CIS 시장은 최근일본, 유럽기업들의 공격

적인 경영과 중국의 저가브랜드공세로 인해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공급자 중심시장에서 수요자 중심시장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우리기업들도 현지 생산체제 구축 등을 통한 본격적 시장 경쟁 대비가 필요함

□ 한-러 CEPA 체결을 통한 비교 우위 선점

- 러시아의 WTO 가입은 우리 기업에게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모두 제공하는 상황이며, 단계적인 시장 개방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점진적인 시장 환경의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러시아의 WTO 가입이후 對러 최대 교역 지역인 EU와의 FTA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므로, 이후 우리 기업들의 통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 따라서 한-러 양국간 CEPA 체결 협상을 조속하게 시도하여, 우리 기업들이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통상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 양국간의 교역현황은 러시아 측에서 주요 광물, 원유 등 자원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측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상호 보완적 협력 구도를 가지고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첨부: 대러시아 주요 수출입 품목의 WTO 양허 관세율. 끝

첨부 1 2010년 우리나라의 러시아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 및 WTO 가입후 양허관세율

순위	품목명	MTI	수출액 (천달러)	품목명 (일부 예시)	HS코드	러시아의 WTO 가입 발효시 관세 감축계획 (양허관세)				
						가입시~2015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	승용차	7411	1,887,070	1,000cc < 배기량 ≤ 1,500cc	8703221099	가입시~2015 25% (1.1€/cc 이상)	2016년 23% (0.73€/cc 이상)	2017년 20% (0.37€/cc 이상)	2018년 17%	2019년~ 15%
				1,500cc < 배기량 ≤ 1,800cc	8703231910	가입시~2015 25% (1.25€/cc 이상)	2016년 23% (0.83€/cc 이상)	2017년 20% (0.42€/cc 이상)	2018년 17%	2019년~ 15%
				1,800cc < 배기량 ≤ 3,000cc	8703231920	가입시~2015 25% (1.8€/cc 이상)	2016년 23% (1.2€/cc 이상)	2017년 20% (0.6€/cc 이상)	2018년 17%	2019년~ 15%*
2	자동차부품	7420	764,760	기어박스	8708402001	5%				
3	선박	7461	607,015	탱커	8901201000	5%				
4	합성수지	2140	448,723	석유수지, 쿠마론, 인덴 등	3911100000	가입시	2013년	2014년	2015년~	
						10%	8.8%	7.7%	6.5%	
5	칼라TV	8211	307,946	LCD/플라스마TV(녹화가능)	8528722001	가입시	2013년	2014년	2015년~	
						20%(51€ 이상)	16.7%(42.5€ 이상)	13.3%(34€ 이상)	10%(25.5€ 이상)	
6	무선전화기	8121	255,889	셀룰러/무선통신망용 전화기	8517120000	가입시		2013년~		
						5%		0%		
7	평판디스플레이	8361	202,317	액티브 매트릭스 LCD	9013803000	가입시	2013년	2014년	2015년~	
						5%	3.3%	1.7%	0%	
8	건설중장비	7251	187,911	250마력 초과 불도저/앵글도저	8429110010	가입시	2013년	2014년	2015년~	
						10%	8.8%	7.5%	5%	
9	화물자동차	7412	183,155	차량총중량 ≤ 5톤	8704213100	10%				
10	가정용 플라스틱제품	3109	112,086	페놀수지 판, 시트 등	3921903000	가입시	2013년	2014년	2015년~	
						10%	8.8%	7.7%	6.5%	

* 배기량 2,801cc~3,000cc SUV는 12.5%

첨부 2

2010년 우리나라의 러시아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 및 WTO 가입후 수출세 감축계획

순위	품목명	MTI	수출액 (천 달러)	품목명 (일부 예시)	HS코드	러시아의 WTO 가입 발효시 수출세 감축계획				
1	원유	1310	3,973,697	20℃에서 694.7kg/m ³ < 비중 ≤ 887.6kg/m ³ 0.04% < 유황 ≤ 1.5%	2709009003	WP* ≤ 109.5\$/톤	0\$			
						109.5\$/톤 < WP ≤ 146\$/톤	수출세 ≤ 0.35(WP-109.5)\$/톤			
						146\$/톤 < WP ≤ 182.5\$/톤	수출세 ≤ 12.78\$/톤 + 0.45(WP-146)\$/톤			
						182.5\$/톤 ≤ WP	수출세 ≤ 29.2\$/톤 + 0.65(WP-185.5)\$/톤			
2	나프타	1334	846,162	-	-	원래 수출세 없음				
3	유연탄	1322	837,028	-	-	원래 수출세 없음				
4	천연가스	1340	818,331	천연가스	2711110000	21% (40€/1,000kg 이하)				
5	알루미늄塊 및 스크랩	6211	450,851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7601100000	5% → 0% (4년 균등철폐)				
6	鋼半製品	6191	383,892	-	-	원래 수출세 없음				
7	해양구조물	7462	360,600	-	-	원래 수출세 없음				
8	고철	6184	311,721	鑄鐵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204100000	가입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5% (15€/1천kg 이상)	12.58% (12.5€/1천kg 이상)	10% (10€/1천kg 이상)	7.5% (7.5€/1천kg 이상)	5% (5€/1천kg 이상)
9	명태	0414	244,701	-	-	원래 수출세 없음				
10	우라늄	1360	173,011	-	-	원래 수출세 없음				

* WP : World Price (국제유가)

2011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BR (Global Business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Check it~! 2011년 해외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2011.1
11-002	한-미 FTA 발효에 대한 美 바이어, 현지 진출 한국기업 및 투자자 반응 조사	2011.1
11-003	남부 수단 독립 진전 현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2011.2
11-004	美 바이어가 뽑은 한-미 FTA 10대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2011.2
11-005	월드컵 특수, 카타르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동향	2011.3
11-006	위기의 리비아, 대체시장을 잡아라	2011.3
11-007	일본 · 인도 CEPA체결의 파급효과와 현지반응	2011.3
11-008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시장 트렌드 1편(멕시코, 브라질편)	2011.3
11-009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시장 트렌드 2편(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편)	2011.3
11-010	동 · 서남아 주요국의 노무여건 변화와 진출기업의 대응 방향	2011.4
11-011	한-페루 FTA 수출유망상품 및 진출방안	2011.3
11-012	일본 대지진 발생 한달 -일본 산업계 복구현황과 대일 수출입 영향-	2011.4
11-013	우리기업의 對인도 투자 트렌드 변화	2011.4
11-014	요르단 물 부족 실태, 정부대책 및 우리 기업 참여 방안	2011.4
11-015	히트상품을 통해 본 일본 소비시장 동향	2011.4
11-016	베트남 유통시장 현황과 진출전략	2011.4
11-017	한-EU FTA로 날개 달 중소기업 50대 수출유망상품	2011.5
11-018	미국 가상상품 시장, 이제 시작이다	2011.5
11-019	키워드로 본 2011년 글로벌 소비트렌드	2011.5
11-020	민주화 사태 이후, 중동 바이어가 전망하는 新 중동 시장	2011.5
11-021	아프리카 표준인증제도 현황 및 의미	2011.5
11-022	일본 지진 이후 식품시장 현황	2011.5
11-023	MENA 민주화 사태 150일, 시장 변화와 전망	2011.6
11-024	요르단 전력산업 현황 및 우리 기업(정부) 진출 전략	2011.6
11-025	인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투자진출비용변화	2011.6
11-026	한-EU FTA 최대 수혜주, 자동차부품시장을 잡아라!	2011.6

11-027	아프리카 지역내 창업여건 및 유망분야	2011.6
11-028	한-아세안 FTA 체결이후 수출유망품목의 수출동향	2011.6
11-029	美 기업 클라우드소싱 확산과 국내업체 시사점	2011.7
11-030	남수단 독립에 따른 비즈니스 환경변화 및 진출방안	2011.7
11-031	요르단 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및 우리 기업 참여 방안	2011.7
11-032	한미 FTA로 날개 달 중소기업 35大 수출유망상품	2011.8
11-033	태국 정부조달시장 분야별 진출방안	2011.9
11-034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주요 자동차부품 바이어 대한수입 확대 계획	2011.10
11-035	해외 실버상품 마케팅 성공사례	2011.10
11-036	중동의 탈석유화 전략 및 중소기업 육성 현황	2011.11
11-037	요르단으로 출장가기	2011.11
11-038	3·11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부흥계획	2011.12
11-039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 활용방안	2011.12

□ GIR (Global Issue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1 전망	2011.1
11-002	Post 무바라크 이집트 경제동향 및 전망	2011.2
11-003	한미 FTA에 따른 美 정부조달시장 진출 기대효과 전망	2011.2
11-004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기업의 대응사례	2011.4
11-005	2011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주요내용과 시사점	2011.4
11-006	남유럽 재정위기 1년, 현재 유럽은?	2011.5
11-007	팩스 시니카, 한국의 기회와 위협	2011.5
11-008	소버린쇼크 이후 세계시장 동향 및 수출여건 분석	2011.9
11-009	국가브랜드와 한류 현황 파악 조사	2011.10
11-010	무역 1조 달러 가입국가의 중소기업 현황 비교	2011.12

□ KEB (KOTRA Executive Brief)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2011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1.1

11-002	이집트 반정부 시위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11.1
11-003	해외바이어들이 전망하는 최근 이집트사태가 각국 경제 및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11.2
11-004	이집트사태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내역	2011.2
11-005	이집트 사태가 중동과 우리기업에게 미친 영향	2011.2
11-006	중동 북아 사태에 따른 세계경제영향과 향후전망	2011.3
11-007	일본 지진사태가 주요국의 산업에 미친 영향	2011.3
11-008	2011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1.3
11-009	Post 중동민주화, 중동진출 새 활로 된다	2011.4
11-010	시리아 민주화 사태에 따른 우리기업의 유의사항	2011.4
11-011	일본기업의 생산거점 이전 현황조사	2011.6
11-012	해외시장에서 바라본 2011 하반기 수출 전망	2011.6
11-013	2011년 3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1.6
11-014	한-EU FTA 발효 한 달, 현장에서 본 수출확대 효과	2011.7
11-015	최근 인도 투자진출기업의 조세리스크 증가와 대응	2011.8
11-016	재정위기 여파 속, 미국 경제현황 점검	2011.8
11-017	미얀마 현지화 강세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2011.8
11-018	포스트 카다피, 리비아 시장 전망	2011.9
11-019	2011년 4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1.9
11-020	2011년 4/4분기 수출시장동향 점검	2011.9
11-021	일본 엔고와 대일 교역환경 변화	2011.9
11-022	방글라데시 노무여건 변화와 대응	2011.10
11-023	태국 홍수로 인한 일본기업 피해 현황	2011.11
11-024	태국 홍수사태 발생과 영향	2011.11
11-025	동남아 비즈니스한류 영향과 활용전략	2011.12
11-026	해외시장에서 바라본 2012 수출전망	2011.12

□ KOCHI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에 따른 우리기업의 동향 및 전망	2011.3
11-002	세수(稅收)로 보는 2011 중국경제	2011.3
11-003	중국 고속철도 시대와 新소비지도	2011.3

11-004	中國 소비, Code로 잡는다	2011.5
11-005	中, 위안화 대폭 평가절상 가능성은?	2011.5
11-006	ECFA 체결 1주년 점검, 중-대만기업 설문조사	2011.6
11-007	中 숨겨진 마켓, 신흥 거점도시가 뜬다	2011.7
11-008	ECFA, 우리기업에게 득인가, 실인가? (ECFA 체결 1주년 점검)	2011.7
11-009	中 노무관리 비상! 이것이 해법이다!!	2011.8
11-010	외국인의 중국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책	2011.10
11-011	중국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기업의 CSR 7계명	2011.11
11-012	땀 올린 中 권역개발, 내수시장 진출 열쇠	2011.11

□ 외국인투자정책센터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한-EU FTA 발효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2011.1
11-002	일본 『아시아 거점화 추진전략』 조사 및 시사점 분석	2011.5
11-003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2011.6

□ FDI 현안리포트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World Investment Report 2011 번역 요약본	2011.7

□ KOTRA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2011 지역별 진출전략	2011.1
11-002	MDB를 통한 해외 정보통신시장 진출전략	2011.1
11-003	스마트 TV 플랫폼 및 콘텐츠의 해외진출 방안	2011.1
11-004	SW 글로벌 마켓 클릭	2011.1
11-005	외국인투자기업, 한국과 통하다 - 대표 외국인투자 성공사례	2011.2
11-006	중국의 성시별 해외투자정책 연구	2011.3
11-007	중국의 금융지도	2011.3
11-008	주력품목별 수출시장 전망 및 확대 방안	2011.2

11-009	2010년 해외 고급인력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2011.3
11-010	필리핀 노동법 핵심번역본	2011.3
11-011	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	2011.3
11-012	GUIDE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2011.3
11-013	Partnering for the Better Future - 30 Success Storie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2011.3
11-014	KOTRA 공동물류센터의 중장기 발전 방안	2011.3
11-015	세계 이러닝 전략지도	2011.4
11-016	그린리포트(Vol 11. 2011 Spring)	2011.4
11-017	주요 7개국 M&A 동향 조사	2011.4
11-018	韓國投資指南与企業經營信息 (한국 투자가이드 및 기업경영정보)	2011.5
11-019	300개 외투기업 주요경영지표 분석	2011.5
11-020	국내주요기관의 해외네트워크 2011	2011.5
11-021	'10년 해외주요국 투자동향	2011.5
11-022	韓國投資ガイドおよび企業經營情報 (한국투자가이드 및 기업경영정보)	2011.5
11-023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연계성과 국제투자정책	2011.5
11-024	브라질 투자실무가이드	2011.6
11-025	SEOUL FOOD 2011 결과보고서	2011.6
11-026	EU 조달시장 진출가이드	2011.6
11-027	자동차분야 투자유치 위한 주요경쟁국 투자환경조사	2011.7
11-028	글로벌 ODA, 성공 DNA를 찾아라	2011.7
11-029	2011년 1분기 해외 FDI 동향	2011.7
11-030	2011년 하반기 외국인직접투자전망	2011.7
11-031	신규 외투기업을 위한 노동법 가이드	2011.7
11-032	Labor Law Guide for Starting Foreign-invested Enterprises	2011.7
11-033	2010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1.7
11-034	2010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1.7
11-035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0	2011.7
11-036	그린리포트(Vol 12. 2011 Summer)	2011.8
11-037	인도네시아 투자실무가이드 (개정판)	2011.8
11-038	일본 자동차 부품 MAP	2011.8
11-039	2010년도 Invest KOREA 연차보고서	2011.9
11-040	Green Hub Korea 2011 결과보고서	2011.9

11-04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2011.10
11-042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1.10
11-043	캄보디아 투자실무가이드 (개정판)	2011.10
11-044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스마트 디바이스	2011.10
11-045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로봇	2011.10
11-046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디지털방송	2011.10
11-047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시스템반도체	2011.10
11-048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3D	2011.10
11-049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Telematics	2011.10
11-050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RFID	2011.10
11-051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Security	2011.10
11-052	2012 해외진출종합가이드	2011.10
11-053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가이드	2011.10
11-054	2011년 상반기 해외 FDI 동향	2011.11
11-055	국제개발은행 시장진출 안내	2011.11
11-056	그린리포트(Vol 13. 2011 Autumn)	2011.11
11-057	인도의 해외투자 동향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2011.11
11-058	아프리카의 슈퍼스타 국가를 주목하라	2011.11
11-059	CIS 미래 (태양전지, 의료기기, 지능형 교통체계) 시장을 잡아라	2011.11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11-001	2011 KOTRA 글로벌마켓 포럼	2011.1
11-002	2011 친디아 포럼	2011.1
11-003	글로벌 SW진출전략 워크샵	2011.1
11-004	2011 KOTRA 해외 공공조달 포럼	2011.1
11-005	2011 아프리카 포럼	2011.1
11-006	한-EU/한-미 FTA 기회와 도전 설명회	2011.1
11-007	2011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포럼	2011.1
11-008	Dow Chemical Global Alliance Project Series	2011.1
11-009	Global IT Channel Vision 2011 (대형 IT유통사 초청 구매전략 설명회)	2011.2
11-010	글로벌 인재유치 및 활용전략 세미나	2011.2

11-011	중동·북아프리카 시장 긴급점검 설명회	2011.3
11-012	2011 글로벌 공공병원 기자재 조달플라자	2011.4
11-013	브라질 월드컵 프로젝트 설명회	2011.4
11-014	러시아 사하공화국 대통령 경제사절단 설명회	2011.4
11-015	2011 춘계 글로벌 파워텍 연계 세미나	2011.5
11-016	해외투자전략심포지움	2011.5
11-017	중국 신홍 유통기업 초청 구매전략 설명회	2011.5
11-018	제 1회 아프리카 비즈니스 트렌드 포럼	2011.6
11-019	한-대만 산업자원 협력 포럼	2011.6
11-020	Alstom Grid사 초청 구매정책 설명회	2011.7
11-021	주요 신홍시장 기술협력 유망산업 설명회	2011.6
11-022	중국 미개척시장(우루무치, 난닝) 진출전략 설명회	2011.7
11-023	중남미 의약품 진출전략 설명회	2011.7
11-024	2011 인도 권역별 진출전략 설명회	2011.8
11-025	Technology Cooperation with Korea - German Delegation - (한독기술협력사절단 설명회)	2011.8
11-026	FTA Business Week 2011 시장진출 설명회	2011.9
11-027	FTA Business Week 2011 유통망/자동차 부품 설명회	2011.9
11-028	UN조달 종합 설명회	2011.9
11-029	‘외국인의 중국 사회보험 가입의무화’ 관련 긴급 세미나	2011.10
11-030	9th Global Alliance Project : BASF-GAPS Launching Conference	2011.10
11-031	중국 프로젝트 시장진출 설명회	2011.10
11-032	인도 인프라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1.10
11-033	중국시장을 여는 필수열쇠, 인증제도 설명회	2011.10
11-034	제 8회 외국인투자 전문가포럼	2011.10
11-035	GAPS-PLUS Launching Conference	2011.11
11-036	2012 신홍시장 메가 트렌드 컨퍼런스	2011.11
11-037	Building Strategic Relationship with Korea - 2011 Joint Local Government Investment Conference -	2011.11
11-038	10th Global Alliance Project, Gamesa GAPS	2011.11
11-039	Global Healthcare Korea 2011 - 병원 수출 설명회	2011.11
11-040	2011 해외 글로벌인재 유치전략 세미나	2011.11
11-041	Korea Investment Forum 2011	2011.11
11-042	아세안 시장진출 설명회	2011.11
11-043	한-중동 벤처 협력 포럼	2011.11

11-044	리비아 재건 · 복구 진출 설명회	2011.11
11-045	제2회 아프리카 무역투자 포럼	2011.11
11-046	에티오피아 투자 세미나	2011.11
11-047	P&G - GAPS Launching Conference	2011.11
11-048	러시아 신수종 산업진출 설명회	2011.12
11-049	『2012, 중국시장을 뚫는 기업전략 설명회』 자료집	2011.12
11-051	일본 소비재 유통시장 진출 설명회	2011.12

작성자

◆ 모스크바 무역관	김동묘 과장
◆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우상문 과장
◆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	이금하 관장
◆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김성수 관장
◆ 상하이 무역관	김명신 과장
◆ 베이징 무역관	문은혜 과장
◆ 중아CIS팀	박기원 차장

Global Business Report 11-039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 활용방안

발행인 | 오영호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1년 12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